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벌리신 사상리론활동

김대춘

수령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밀고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교조주의, 사대주의적사고방식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 주체의 세계관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든 문제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연구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제1권 증보판 373~374페이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위대성을 밝히기 위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다.

수령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위대성을 밝히는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고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사회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있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에 들어선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맑스-레닌주의로써는 풀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로 맑스-레닌주의의 사상리론적 및 력사적제한성을 분석하시고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를 확립하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위대성을 심오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농업협동화운동의 특징을 원리적으로 옳게 인식할데 대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의 정당성을 바로 인식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과 말씀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위대성, 진리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1(1962)년 5월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 농업협동화운동의 특징을 원리적으로 옳게 인식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 당의 농업협동화방침은 사회적변혁에 관한 새로운 원리에 기초하고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농업협동화를 실현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생산력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농민들자신이 그것을 절실히 요구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말아할수 있는 혁명력량이 준비되어있는가 하는데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밝히신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대중의 생활상요구와 그것을 말아할수 있는 주체적인 혁명력량이 기본으로 된다는 명제는 비단 협동화운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생산관계의 변혁과 사회발전전반의 합법칙성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원리이며 사회적변혁에 관한 리론발전에서 력사적전변을 일으키게 한 위대한 발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의 독창성에 대하여서도 심오한 해명을 주시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맑스-레닌주의확대재생산리론에서 출발한것처럼 생각하면서 억지로 그에 맞추어 해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선행리론에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의 출발점으로 될만 한것이 없었다. 레닌은 소비재를 생산하는 부문에 비하여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이 먼저 발전하고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에서도 소비재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생산에 비하여 생산수단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생산부문이 더 빨리 발전한다는것을 밝혔지만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사이의 호상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것이 합리적인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제기하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맑스-레닌주의확대재생산리론의 제한성과 이 리론을 교조적으로 대하는 그릇된 견해를 지적하시면서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사이의 호상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비로소 밝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그 어떤 고전의 명제에 기초하여 나온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본딴것도 아니며 오직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대한 굳은 확신에 기초하고있는 독창적인 로선이라고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로선은 전후복구건설시기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나왔지만 경제적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로선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밖에도 고전적으로작 《대안의 사업체계는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과 담화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선행리론의 테두리안에서 해석하려는 경향들을 비판하시고 그 위대성과 독창성, 진리성을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1(1962)년 11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과 정당성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의 독창성을 선행리론과의 대비속에서 분석하시고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산주의적요소를 많이 가지고있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에 대안의 사업체계의 특징과 우월성을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원형이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혁명에 관한 리론도 새로운 원리에 기초하여 밝힌 독창적인 사상이라는 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당시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사회제도의 교체만을 혁명으로 보면서 사회제도가 서면 혁명이 끝나는것으로 인식하고있었다. 이것은 선행리론에 대한 교조주의적태도에서 나온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을 단순히 사회제도의 교체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사회제도가 선 다음 계속되는 사상, 기술, 문화혁명도 포괄하여 혁명의 본질을 새롭게 정식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혁명의 류형도 기성의 리론을 기계적으로 따를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새롭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 벌어지는 반제반봉건혁명을 부르조아혁명이나 사회주의혁명에 귀속시킬것이 아니라 독자적류형의 혁명으로 볼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승리하는 요인에 대하여서도 주체적인 견해를 확립하시고 주체50(1961)년 7월 혁명은 사회적운동의 높은 형태이며 운동이 있으면 그것을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담당자가 있기마련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적운동으로서의 혁명운동의 담당자는 인민대중이며 혁명운동의 추동력도 인민대중자신에게 있다는것, 혁명은 인민대중이 사상적으로 각성되어야 일어나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전진하고 승리하는것이 혁명의 기본법칙이라고 밝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령도방법을 중요한 구성내용으로 하고있는 독창적인 사상이라는데 대하여서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2(1963)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계급의당이 인민대중을 어떻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 하는 문제, 당의 혁명적인 사업방법에 관한 문제를 처음으로 빛나게 해결하시였다고 하시면서 령도방법에 관한 문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여러 기회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사상, 리론과 함께 령도방법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독창적인 사상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독창성을 리론적으로 해명하신것은 그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는데서 사상리론적기초로, 확고한 출발점으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으

로 기회주의적사상조류를 반대하는 사상리론활동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는데서 기회주의적사상조류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는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현대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적사상조류를 반대하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1(1962)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학생들과 하신 담화《현대수정주의의 반동적본질과 반수정주의 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혁명적립장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과 말씀들에서 현대수정주의의 발생근원과 그 반동적본질, 해독성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원칙적립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대수정주의의 발생근원과 반동적본질, 그 해독성과 위험성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이 시기 대학생들속에서는 쏘련에서 실시하고있는 정책들에서 혁명적원칙과 어긋나는 수정주의적경향이 있다는것을 느끼면서도 큰 나라, 혁명을 한지 오랜 나라에서도 수정주의가 발생할수 있겠는가 하면서 현대수정주의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 그 위험성에 대하여 옳바로 인식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대수정주의의 발생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집권당안에서 수정주의가 하나의 사상조류로 나타나게 된것은 혁명의 배신자가 수령이 사망한 틈을 타서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탈취하고 수정주의를 내리먹인것과 관련되어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회주의나 집권당안에서 수정주의가 발생하게 되는 근원은 안으로는 부르조아적경향에 포로되고 밖으로는 제국주의압력에 투항하

는데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대수정주의의 반동적본질은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데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현대수정주의가 큰 나라의 집권당에서 발생하여 수정주의를 당과 국가의 정책으로 내러먹이며 국제관계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이 제2국제당 수정주의보다 더 크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대수정주의의 해독성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부인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전인민적당》이요 뭐요 하고 들고나오는것은 결국 당의 계급적성격과 그 령도적역할을 거부하며 나아가서는 계급투쟁을 하지 않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데 대하여 밝히시고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것은 본질상 당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것과 같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이 《개인미신》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들고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면서 수령이 이룩한 업적과 혁명전통을 유린말살하고있는데 이것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령도를 거부하는 최악적인 책동이라고 단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자유》요, 《민주주의》요 《인도주의》요 하면서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원자공갈정책에 겁을 먹고 그앞에 굴복하며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면서 반제투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대하여서도 지적하시였다. 그리고 현대수정주의자들이 형제당들사이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란폭하게 유린함으로써 사회주의

나라들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파괴하고있는데도 그 해독성이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대수정주의가 일시적으로 레닌주의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기만할수 있으나 조만간에 중국적파산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며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가 필연적인것과 같이 수정주의의 파산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승리도 역시 필연적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1(1962)년 3월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원, 학생들을 만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결론을 지침으로 삼고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현대수정주의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반수정주의투쟁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레닌주의의 간판을 쓰고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막대한 해독적후과를 미치고있던 현대수정주의의 정체가 적라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위대성을 과학리론적으로 새롭게 밝히시고 철저히 옹호고수해나가심으로써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사상리론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었다.